



알함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성'을 뜻하는데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성벽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 그라나다의 이름난 관광명소인 알함브라 궁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유산으로 선정한 곳이다.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스페인 그라나다

글 · 사진 : 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유럽의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페인은 흔히 태양과 정열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 나라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코르도바를 경유하여 고속버스 편으로 그라나다에 도착했다. 이름난 관광지이긴 하지만 예상 외로 조용한 도시였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유서 깊은 도시인 그라나다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북쪽에 있는데 기후가 따뜻하여 예로부터 사람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라나다는 이슬람 문화의 자취가 곳곳에 스며있는 곳이다. 7세기부터 약 800년 간 이슬람교의 중심도시로서 번영을 누린 때문이다. 시내에는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 16세기 지어진 수도원과 대학, 16~18세기 완공된 대성당 같은 이름난 건축물들이 자리한다.

도착 이튿날 아침 그라나다의 진수인 알함브라 궁전으로 향했다. 시내에서 버스를 두 차례 갈아타고서도 20분 정도 밖에 안걸렸다.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은 누구나 일생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알함브라 궁전의 미로같은 내궁을 걸노라면 어디선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명곡인 '알함브라의 추억'이 들려오는듯 하다. 스페인의 유명한 기타 연주가인 타레가는 자신의 제자인 콘차 부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알함브라 궁전의 기둥에 기대어 앉아 은은한 달빛을 배경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기타로 치면서 자신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이나 알함브라 궁전에서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다.

알함브라 궁전은 1238년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무어 왕조의 유수프왕이 처음 짓기 시작한 후 증축과 개수를 거듭하여 1323년에 완성되었다. 현재의 알함브라 궁전의 모습 대부분은 14세기 때의 것이다. 알함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성'을 뜻하는데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성벽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알함브라 지역은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함브라 궁전을 비롯하여 붉은색 벽들로 만들어진 성채인 알카사바, 카를로스 5세 궁전, 여름정원이라 불리는 헤네랄리페라 등으로 구분된다. 알카사바는 나스르 왕국이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한 성곽으로 이 성곽의 벨라의 탑에 오르면 그라나다 시내를 잘 볼 수 있다. 알카사바 바로 밑은 하얀 색 아랍식 집들이 밀집해

있는 알바이신 지구인데 집시들이 많이 살고 있다. 밤에는 구경거리로도 볼 만하고 스페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플라멩코 춤이 공연된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한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특유의 신비감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높이 130m, 폭 182m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한 곳이다. 아라베스크 양식의 문양과 무늬로 만들어진 건물 외관이 아름답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한 장식물들이 즐비하다. 대리석, 타일, 채색 옷칠을 사용한 이슬람 고유의 양식으로 지어진 방들이 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정원은 특히 아름답다. 전형적인 아랍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무어 양식으로 이슬람 정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건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학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물의 활용 효율도 매우 뛰어나다. 크고 작은 연못과 분수에 흐르는 물은 시에라 네바다의 눈 녹은 물로 수많은 수로를 통해 이곳까지 공급된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 따르면 낙원은 아자나 석류를 비롯한 갖가지 과실나무가



▲ 플라멩고 춤을 추는 집시어인

무성하고, 밑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며 신선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알함브라 궁전은 마치 이러한 이슬람의 낙원을 재현한 것 같다. 아랍 정원들이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자연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지 않을까.

알함브라 궁전에서 불만 한 곳으로는 정의의 방, 대사의 방, 두 자매의 방, 사자의 뜰, 왕의 목욕탕 등이다. 왕궁의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정의의 방을 만난다. 이곳 정의의 문에는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이 새겨져 있다. 첫째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라, 둘째 라마단 때 금식을 하라, 셋째 이슬람교의 성지를 순례하라, 넷째 유일신 알라를 믿어라, 다섯째 자비를 베풀라 등이다. 정의의 방 천장은 여러 색깔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졌

으며 벽면은 적·청·녹·황금색의 타일로 이루어졌다.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은 나무나 꽃 같은 자연물이거나 '알라만이 승리한다'라는 꼬불꼬불한 아랍어 글씨들이다.

'사자의 정원'은 알함브라 궁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다. 가운데에는 열두 마리의 사자가 분수대를 받치고 있는 널찍한 정원이 있고 둘레에는 124개의 대리석 기둥들과 화려한 아라베스크 양식의 벽면이 가득하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방들이 많은데 이슬람 왕국이라면 오래 있는 왕들의 거처인 하렘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왕과 그의 처첩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금남의 지역이었다. 외부 남자가 허락없이 들어왔다가는 그대로 처형을 당했다. 2층에는 왕비와 왕의 여자들이 사는 방들이 있었는데 한 때 이곳을 엿본 남자 여덟 명이 교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자분수대에서 흘러나온 물은 작은 수로를 따라 하렘의 방안 분수대를 돌아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종의 가슴기 역할을 한 것이다. 사자의 뜰에 있는 커다란 분수대는 물시계 역할도 했는데 1시에는 한 마리의 사자 입에서 물이 나오고, 8시에는 여덟 마리의 사자 입에서 물이 나오는 식으로



▲ 스페인 그라나다에 온 관광객들



▲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지구,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다.



▲ 알함브라 궁전에는 기하학적인 균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

시간을 표시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이슬람 왕에게 바친 이 12개의 사자상은 당시 그라나다에 살던 유대인 12부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그라나다는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기후도 온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곳에선 대낮에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했지만 이곳 그라나다에선 치안이 안정되어 마음이 편안했다. 그라나다의 시민들도 생활수준이 높고 안정된 치안,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